

제2차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교역통계 관련 작업반회의 참석

2009. 11.

통 계 청

1. 여행개요

여행목적	○ 제2차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교역통계 관련 작업반회의 참석 The 2nd Meeting of the Working Party on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Trade in Services Statistics(WPTGS)
여행동기 및 배경	○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역통계 및 세계화지표 등에 관한 국제적 논의사항을 점검 ○ 무역통계 관한 프레임워크 변화와 국내 무역통계의 방법론적 개선 필요성 파악 ○ 무역통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제시
여행기간	○ 2009.11.15(일)~11.19(목), 3박 5일
여행국	○ 프랑스(파리)

2. 여행세부계획

가. 배경

- 세계경제가 위기와 함께 국제무역이 빠른 하향세에 접어들면서 무역통계, 세계화 지표의 변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 한편 국내 경제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무역통계가 필요
- 따라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무역통계의 국제적 변화를 파악하고, 국내 통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금번 회의를 통해 모색하고자 함

나. 세부업무내용

- 무역통계의 국제적 이슈 및 아젠다 파악과 국내현황 등에 대한 의견 개진
 - 무역통계 작성 시 국제기구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 무역통계 data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방법론 모색
 - 무역통계의 방법론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
- 경제위기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통계 발전방향 모색
 - 경제위기와 세계화에 따른 교역환경의 변화 논의
 - 2008 SNA, IMTS Rev3. 등의 이행상황 점검
 - 제2차 WPTGS 회의 Draft에 대한 의견 개진

다. 여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 국내 무역통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개선안 도출
- 무역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 무역통계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3.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1.15(일)	인천 14:00 (KE901)	파리 18:05			윤연옥 (OECD 파견관)
11.16(월)	파리	파리	OECD (컨퍼런스센터)	무역통계 관련 국제기구간 협력에 관한 회의 참석	Mr. Paul Schreyer (OECD 통계과장대리)
11.17(화)	파리	파리	OECD (컨퍼런스센터)	서비스 분야, 국제무역통계 Rev3. 이행상황 점검회의 참석	Mr. Paul Schreyer (OECD 통계과장대리)
11.18(수)	파리 20:35 (KE902)	인천 11.19(목) 15:25	OECD (컨퍼런스센터)	무역, 경제위기, 세계화에 관한 회의 참석	Mr. Paul Schreyer (OECD 통계과장대리)

<제2차 국제무역 및 서비스무역통계 작업반 회의 주요내용>

I. 회의 주요 내용

1. OECD 관련 최근동향

□ 제3차 OECD세계포럼 개최

- 지난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3차 OECD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언급

* '09.10.27-30,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

- 특히 기존의 GDP를 넘어 '삶의질'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전 세계가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
- 또한 스티글리츠 교수(컬럼비아대)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올바른 사회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전 세계가 GDP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개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

□ OECD 가입후보국에 대한 통계분야 검토결과 보고

- OECD 가입후보국(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러시아, 칠레)에 대한 통계분야 검토결과를 보고
- 이스라엘 등 4개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

어졌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러시아의 경우 자료 미비 등으로 인해 검토가 미진한 것으로 보고

2. 무역통계의 품질 향상

□ 국제기구간 협조의 중요성

- 국제상품무역통계TF(TFIMTS)와 국제서비스통계TF(TFSITS)의 연구성과를 보고*하면서, 특히 WTO, OECD 등 무역통계를 관장하는 국제기구간 협조의 중요성을 언급

* 국제상품무역통계 매뉴얼(IMTS2010)에 대해 회원국들이 대체로 동의, 향후 실무자용 매뉴얼과 UN공용어 매뉴얼의 조속한 발간을 기대

- 특히 WTO, OECD 등 국제기구간 협조를 통해 무역통계 자료를 일치시켜야 이용자들이 통계사용에 혼란이 없음

□ 국제상품무역통계의 품질향상

- 국제상품무역통계 작성시 각국의 자료일치를 위해 6자리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를 2자리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중국, 미국 등 각 state간 거래*를 국가간 거래와 동일하게 측정하고 있어 상품무역통계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

* 중국의 경우 홍콩과의 거래가 무역통계에 잡히고 있음

- 아울러 OECD의 통계포털 SDMX(Statistical Data and Metadata eXchange)는 활용성제고를 위해 IMF등과의 자료공유, 국제 표준과의 포맷표준화 등을 추진

3. 새로운 무역통계 개발 및 적용

□ 개별기업통계와 무역통계의 연계 강화

- 상품무역에 관한 자료를 응답자로부터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고, 정확한 무역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 단위의 교역자료를 연계(link)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개별기업통계와 무역통계를 연계시킴으로써 외부상황 변화에 따른 무역규모의 변화를 기업부분까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산업정책의 분석 및 입안에 이용할 수 있음을 강조
 - 많은 참가국 대표들의 관심을 받았던 주제로써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음

4. 최근 무역통계관련 이슈

□ 최근의 금융위기와 무역

-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금융위기를 196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언급하면서 그에 따라 국제무역의 동조화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

- *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해 금융위기에 따른 한 국가의 무역감소가 다른 국가의 무역감소를 유발하여 두 국가에서 동시에 무역감소가 나타나는 현상
- 무역 동조화현상이 금액(Value) 뿐 만 아니라 물량(Volume)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물량이 금액보다는 적게 하락하였음을 언급
- 특히 몇몇 국가들의 경우 물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언급
- 일본의 기술(Technology) 수출입에 대한 보고서 및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 일본 자동차 기업 등이 해외에서 생산을 증가시킴에 따라 Royalty, Licence fee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Royalty, Licence fee 등의 수입도 함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함
- 수송장비, 전자기기 기업 등에서는 R&D 투자가 줄었으나 의학분야에서는 R&D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세계화와 무역

- OECD는 세계화에 따라 각종 세계화 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OECD Input-Output을 통해 경제충격의 영향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국제적 부가가치의 이동을 분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이 굉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

- 특히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는 40개국의 40개 산업(NACE) 60개 품목의 데이터를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아웃소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환경분석, 부가가치의 이동 뿐 만 아니라 각종 Modeling(CGE Modeling, Dynamic IO-base Modeling)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언급

II. 관찰 및 평가

- ☐ 금번 제2차 국제무역 및 서비스무역통계 작업반 회의(Working Party on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Trade in Services Statistics)는 국제무역통계의 방향과 각국의 상황 등을 점검하는 회의임
- 특히 OECD 회원국, UN, WTO, Eurostat 등 국제기구, 이스라엘 등 OECD 가입후보국의 무역통계 및 국제수지통계 관련 전문가가 등 60여명이 참석
- WPTGS에서는 상품무역통계와 서비스무역통계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과 향후 전략적 방향을 소개하였으며,
 - 해당 국가에서는 실증적인 경험과 질문을 통해 상품무역통계와 서비스무역통계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의견을 개진
- ☐ 각 국가간의 무역통계 비교와 통계 이용자들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기구간 자료 협조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대외기관에 대한 무역통계 제공시 정확한 데이터를 송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개정 매뉴얼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의 생산이 중요

- 최근 개정된 IMTS Rev.3, MSITS2010, 2008 SNA, BPM6, EBOPS 등의 매뉴얼 기준으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사전 시험편제 실시 등의 과정이 필요

- OECD의 EU 가입국을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는 기업통계와 무역통계의 연결 작업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

- 무역통계 데이터를 기업의 대, 중, 소로 분류하거나 산업별로 분류함으로써 무역 관련 경제 현상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무역진흥정책 수립에 적용 가능

- 이번 회의를 통하여 OECD와 WTO등의 국제기구와 여타 국가들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이행하고 있는 무역통계 관련 이슈에 대해 상기할 수 있었고 이를 우리나라의 무역통계에 적용하여 통계의 품질향상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통계 생산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

- 매년 지속적으로 동 회의에 참여하여 국제적 무역통계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국제교류 강화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성